<h1>나 혼자만 레벨업-17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c909ce7c02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7화.</p>  
<p>진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데, 진우가 불쑥 우산을 내밀었다.</p>  
<p>"우산은 왜?"</p>  
<p>우산을 받아 든 진아가 위를 올려다봤다.</p>  
<p>아직 새벽이라 어둡긴 하지만 하늘은 그럭저럭 맑은 편이었다.</p>  
<p>"비 안 올 거 같은데?"</p>  
<p>"가져 가."</p>  
<p>"무겁단 말이야."</p>  
<p>"그래도 가져가. 그거 접이식 우산이라 별로 무겁지도 않잖아. 어디서 엄살이야, 엄살은."</p>  
<p>쾅.</p>  
<p>진우가 문을 닫아버렸다.</p>  
<p>"씨- 순 지 맘대로야."</p>  
<p>불만의 표시로 가볍게 문을 콩콩 차던 진아는 우산을 가방 안 빈 자리에 포개 놓고 걸음을 돌렸다.</p>  
<p>'잠깐만...'</p>  
<p>방금 전 오빠와 자신의 눈높이를 계산해 본다.</p>  
<p>이상하다.</p>  
<p>분명 전보다 오빠의 시선이 높아졌다.</p>  
<p>"남자는 스무 살이 넘어서도 키가 크나?"</p>  
<p>에이, 설마.</p>  
<p>진아는 다시 고개를 가로젓고는 학교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.</p>  
<p>철컥.</p>  
<p>문을 잠근 진우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인벤토리를 불러냈다.</p>  
<p>"창고."</p>  
<p>창고, 인벤, 인벤토리.</p>  
<p>몇 번의 실험 끝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뜻만 통하면 명령어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.</p>  
<p>메시지함을 열 때도 마찬가지.</p>  
<p>열어, 오픈, 열기 등 명령어에 연다는 의미만 포함되면 어김없이 작동했다.</p>  
<p>진우는 눈앞에 펼쳐진 디지털 창고에 방금 전 랜덤 박스에서 획득한 우산을 밀어 넣었다.</p>  
<p>"오늘도 꽝이네."</p>  
<p>인던에 들어갔다 온 후로부터 4일이 지났다.</p>  
<p>또다시 인던 입장 열쇠가 나오지 않을까 랜덤 박스를 깔 때마다 기대했지만, 그리 쉽게 나오는 물건은 아닌지 아쉽게도 아직까지 소득이 없었다.</p>  
<p>'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.'</p>  
<p>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다.</p>  
<p>오늘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.</p>  
<p>"스탯."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48 체력: 27 민첩: 27 지능: 27 감각: 27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12)</p>  
<p>4일 치 능력치 포인트가 고대로 쌓여 있었다.</p>  
<p>일일 퀘스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.</p>  
<p>물론 보상도 꼬박꼬박 다 챙겨 받았다.</p>  
<p>하지만 능력치 포인트를 배분하지 못하고 있었다.</p>  
<p>무엇이 문제인고 하니.</p>  
<p>"...어렵다."</p>  
<p>그렇다.</p>  
<p>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.</p>  
<p>근력.</p>  
<p>좋은 스탯이다.</p>  
<p>초반에 투자한 걸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.</p>  
<p>민첩.</p>  
<p>역시 좋은 스탯이다.</p>  
<p>약한 적을 상대로는 상관없으나 적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필요해질 스탯이었다.</p>  
<p>속도는 상대적인 거니까.</p>  
<p>그리고 체력, 감각.</p>  
<p>체력이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, 감각도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유용했다.</p>  
<p>지능.</p>  
<p>...이게 문제다.</p>  
<p>유일하게 기능을 알 수 없는 스탯이었다.</p>  
<p>레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머리가 좋아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.</p>  
<p>암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, 연산이 빨라진 것도 아니고.</p>  
<p>'마법과 관련된 스탯일 거 같긴 한데...'</p>  
<p>어쩌면 아직은 필요 없는 스탯일지도 모른다.</p>  
<p>그러니 남은 건 근력, 민첩, 체력, 감각 이 넷뿐인데.</p>  
<p>"...그래도 역시 어렵다."</p>  
<p>선택지가 하나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민되긴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확신이 서질 않았다.</p>  
<p>일단 근력과 민첩의 상성이 좋다는 것은 알았다.</p>  
<p>아무리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도 맞추지 못하면 소용없다.</p>  
<p>반대로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 소용없다.</p>  
<p>그러니 근력과 민첩은 세트라고 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지금은 근력이 높으니까 민첩을 근력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좋겠군.'</p>  
<p>민첩을 올린다고 치면 체력은 후 순위로 돌려야 한다.</p>  
<p>민첩과 체력은 상성이 나쁜 편이니까.</p>  
<p>민첩이 높아지면 상대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데 반해, 체력은 상대에게 피해를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치다.</p>  
<p>'물론 최소한의 체력은 있어야겠지만...'</p>  
<p>민첩과 체력을 동시에 올리는 건 무척이나 비효율적으로 보였다.</p>  
<p>고민 끝에 우선순위가 결정됐다.</p>  
<p>첫 번째는 민첩, 두 번째는 감각, 세 번째는 체력.</p>  
<p>근력은 이미 충분히 투자해 뒀으니 보류하고, 민첩을 높일 예정이니 체력보다는 감각을 우선시한다.</p>  
<p>결정을 내린 진우는 근력에 2포인트를 찍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0 체력: 27 민첩: 27 지능: 27 감각: 27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10)</p>  
<p>일단 근력 스탯을 50까지는 맞춰놓고 싶었다.</p>  
<p>그게 사람 심리 아닌가.</p>  
<p>그런 다음 민첩에 8포인트를 썼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0 체력: 27 민첩: 35 지능: 27 감각: 27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2)</p>  
<p>이것도 이유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.</p>  
<p>끝자리를 5로 맞추고 싶어서였다.</p>  
<p>'숫자는 뒷자리가 어정쩡한 것보다 5의 배수로 깔끔하게 끝나는 게 좋단 말이지...'</p>  
<p>근력 50과 민첩 35.</p>  
<p>이렇게 5의 배수로 딱딱 맞아떨어지니 별것도 아닌데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그리고 마지막 2포인트.'</p>  
<p>진우는 남은 포인트 두 개를 전부 감각에 투자했다.</p>  
<p>이로써 모든 포인트 분배가 끝났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0 체력: 27 민첩: 35 지능: 27 감각: 29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감각을 30으로 맞추지 못한 것이 옥에 티라면 티라고 할까.</p>  
<p>'남은 포인트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.'</p>  
<p>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다.</p>  
<p>체력이나 지능은 레벨 업을 통한 추가 스탯만으로도 충분할 듯했다.</p>  
<p>"이 정도면 된 건가?"</p>  
<p>어떤 일이든 100퍼센트 전부 다 마음에 들기는 어려운 법이다. 그래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들이라 대체로 만족스럽긴 했다.</p>  
<p>그때 거실에서 벨 소리가 울렸다.</p>  
<p>뚜르르, 뚜르르-</p>  
<p>'협회에서 온 전환가?'</p>  
<p>예전 같았으면 레이드에 불려 나가기 싫어서 최대한 버텼을 진우지만, 지금은 마수들에게 달라진 능력치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다.</p>  
<p>진우는 빠르게 수화기를 들었다.</p>  
<p>"헌터 성진우입니다."</p>  
<p>-아이고, 인제 받는구먼.</p>  
<p>협회에서 온 전화가 아니었다.</p>  
<p>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었다.</p>  
<p>-진우 학생, 요즘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?</p>  
<p>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낯익었다.</p>  
<p>진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이란 꼬리표를 뗸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, 어릴 적부터 진우를 봐 왔던 집주인은 아직도 진우의 이름 뒤에 학생 자를 꼭 붙였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, 주인 아저씨.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습니다."</p>  
<p>-쯧쯧, 그랬구먼. 어쩐지. 그건 그렇고 저기, 진우 학생... 아직 이번 달 집세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, 어떻게, 지금 당장이 힘들면 한 두어 달 기다려 줄까?</p>  
<p>"아닙니다. 좀 이따 넣어 드릴게요."</p>  
<p>-그려. 너무 무리하진 말고. 엄마랑 동생 보살핀다고 진우 학생이 욕보네. 돈도 좋지만 몸조심부터 혀.</p>  
<p>"네. 말씀 감사해요."</p>  
<p>통화는 그렇게 끊겼다.</p>  
<p>진우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쳐보았다.</p>  
<p>잔고가 80만 원이었다.</p>  
<p>"후-."</p>  
<p>저절로 한숨이 나왔다.</p>  
<p>집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는 30만 원이 전부다. 그나마 그 집세 50만 원도 아파트가 워낙 시내 외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곳인 데다가, 집주인이 딱한 진우네 사정을 고려해 몇 년 전부터 세를 안 올린 덕분에 나온 금액이었다.</p>  
<p>요즘은 월세 50으로 아파트에 살기 힘들다.</p>  
<p>생활비 30으로 한 달을 버티기는 더더욱 힘들다.</p>  
<p>"일단 돈부터 벌자."</p>  
<p>진우는 우선적인 목표를 정했다.</p>  
<p>이제는 E급 마수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아서 벌벌 떨던 며칠 전의 자신이 아니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헌터가 돈을 벌려면?</p>  
<p>마수를 잡는 게 최고다.</p>  
<p>S급이나 A급 상위에 있는 헌터들이야 스폰도 받고, 광고도 찍고, TV쇼에도 나오고 하면서 그야말로 재벌 부럽지 않게 돈을 긁어모으지만, 그들은 소수다.</p>  
<p>극히 일부다.</p>  
<p>그런 극소수의 최상위권 헌터들 말고 대부분의 헌터들은 던전에서 돈을 번다.</p>  
<p>랭크가 높으면 높을수록.</p>  
<p>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.</p>  
<p>각자 역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.</p>  
<p>협회 공인 랭크 E등급에다가 C급이상 게이트 경험도 없는 진우에게는 다소 가혹한 조건이었다.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'조건은 둘째치고 일단 공격대에 들어갈 수 있기라도 하면 좋겠는데...'</p>  
<p>헌터 사이트의 구인게시판을 보고 몇 군데 전화를 돌려 봤지만 전부 허탕이었다.</p>  
<p>아무도 E급 헌터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.</p>  
<p>구인란을 이용하는 헌터들은 거의 개인이고,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에, 팀을 짜거나 타인의 팀에 들어갈 때 무척 신중했다.</p>  
<p>길드에 들어가기는 실력이 부족하고 협회에서 일하기에는 등급이 높은 사람들.</p>  
<p>다들 그런 어중간한 위치였다.</p>  
<p>'그런 헌터들조차도 한 달 수입이 천을 넘는다지.'</p>  
<p>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.</p>  
<p>목숨이 걸린 일이니 벌어들이는 액수도 많을 수밖에.</p>  
<p>괜히 헌터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.</p>  
<p>진우의 입장에선 속이 타는 일이었다.</p>  
<p>'차라리 재심사를 받아서 등급을 확 올려 버릴까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한 짓이었다.</p>  
<p>E급 헌터가 상급 헌터가 됐다!</p>  
<p>그게 A급이든 B급이든, 심지어 C급이라 해도 상관없다.</p>  
<p>재각성은 분명 화제가 된다.</p>  
<p>대중은 가십을 좋아하고, 헌터는 좋은 안줏감이니까.</p>  
<p>입이 다섯 개면 눈은 열 개라 했다.</p>  
<p>사람들 입에 오르내릴수록 보는 눈이 많아진다는 거다.</p>  
<p>능력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, 그러면 특이한 체질이 들통나는 건 시간문제였다.</p>  
<p>"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헌터가 있다고?"</p>  
<p>"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져?"</p>  
<p>"그 헌터는 누구냐?"</p>  
<p>"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"</p>  
<p>"어떡하면 그처럼 될 수 있는 거지?"</p>  
<p>분명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.</p>  
<p>여태까지 이런 헌터는 없었으니까.</p>  
<p>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이들 중에는 분명히 이용하려 들거나 적의를 가지는 자들도 존재할 터였다.</p>  
<p>'만약 그런 놈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...'</p>  
<p>생각만 해도 끔찍했다.</p>  
<p>아직은 힘이 부족했다.</p>  
<p>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.</p>  
<p>등급 재심사는 안 될 말이었다.</p>  
<p>'그래도 돈은 벌긴 해야 하는데.'</p>  
<p>그렇다고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협회에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.</p>  
<p>던전에 가면 돈과 경험치를 둘 다 잡을 수 있는데, 푼돈 몇 푼에 그 기회를 날릴 순 없지 않은가.</p>  
<p>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데, 게시판에 눈에 띄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.</p>  
<p>-등급 관계없이 지금 바로 올 수 있는 아무나 한 분 모십니다! 급구!!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.</p>  
<p>방금 막 작성된 따끈따끈한 글이었다.</p>  
<p>재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다.</p>  
<p>상대도 어지간히 급했는지 대기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-여보세요?</p>  
<p>진우는 간략하게 용건을 정한 뒤 상대방의 대답을 차분히 기다렸다.</p>  
<p>-아, E등급이라시고요?</p>  
<p>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.</p>  
<p>-괜찮습니다. 그냥 오셔서 머릿수만 채워 주시면 돼요. 근데 C급 게이트라 사냥에 끼시긴 힘드실 테니 배분은 저희끼리 하고 대신 현금으로 2백만 원 드릴게요. 어떠세요?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?</p>  
<p>일당 2백만 원!</p>  
<p>머릿수만 채우고 받는 돈치곤 꽤 컸다.</p>  
<p>괜찮은 조건이었다.</p>  
<p>던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, 그것까지 욕심부리다가는 2백만 원마저 놓칠 가능성이 높았다.</p>  
<p>'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.'</p>  
<p>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.</p>  
<p>2백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는 충분한 돈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제안을 받아들였다.</p>  
<p>"15분 내로 가겠습니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